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우03045)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Korea (03045)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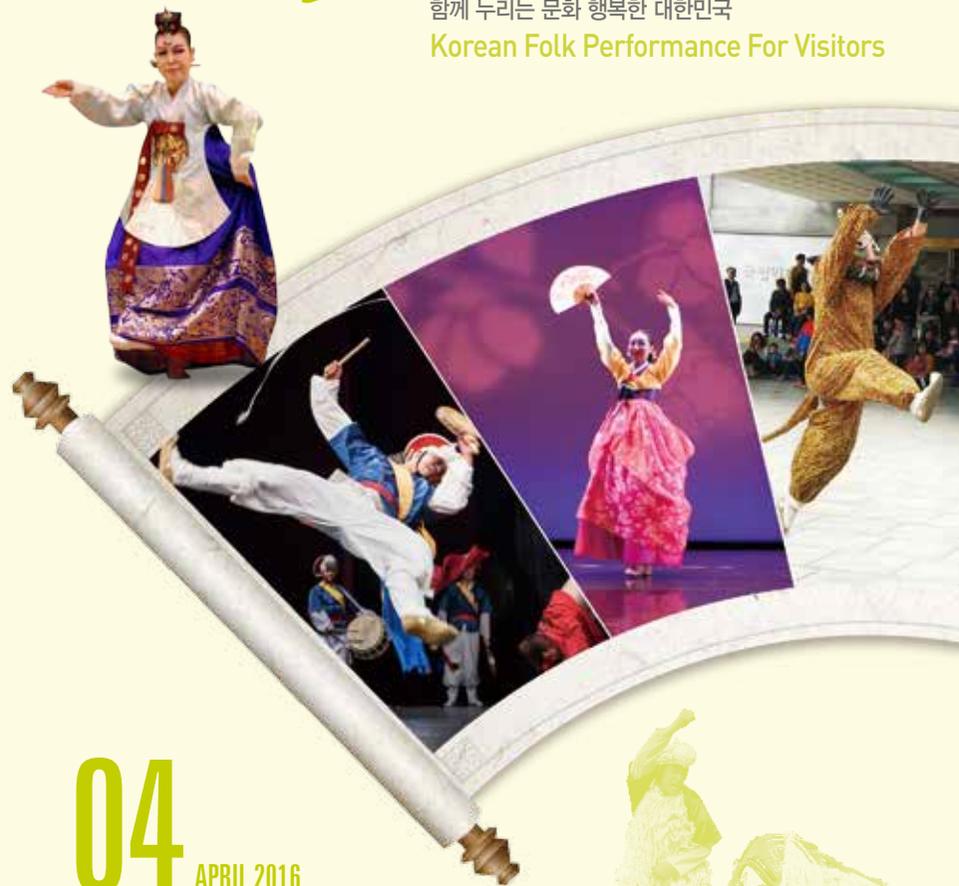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 금, 토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 공연전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4 APRIL 2016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pril

2016년 4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일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April

2016년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4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pril,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6년 4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42회

‘予’(녀여) ‘汝’(나여)의
天聲地音(천성지음)

Boy and Girls, Beautiful voice of Heaven

04. 02.



제943회

조경아의 춤
‘봄 향기는 내 마음에’

Dance by Jo kyung-A ‘The scent of spring in mind’

04. 09.



제944회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Pungryu Concert with explanation

04. 16.



제945회

최정옥의 춤

Dance by Choi Jeongok

04. 23.



제946회

국악과 함께하는 ‘노래하는 박물관’

‘A singing Museum’ with Gukak

04. 30.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4월 일요일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April,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6년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85회

바람의 연희

Play of wind

04. 03.



제386회

고성오광대 전과장

Entire Gwajang of Goseong Ogwangdae

04. 10.



제387회

희망의 오복락락

The Hope of ‘Obokrakrak’

04. 17.



제388회

다 같이 노는 날

The day ‘We play together’

04. 24.

우리민속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한마당

5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May

- 05. 01. (일) 연희 판놀이 '打&樂 콘서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연희)
- 05. 07. (토) 봉산이네 사자의 눈, 코, 입, 꼬리를 찾아주세요 The 나린(기악)
- 05. 08. (일) 세계를 향해 본때를 보인다! '본때' 결련택견(무예)
- 05. 14. (토) 송미숙의 춤 송미숙(무용)
- 05. 15. (일) 담양우도농악 대동굿 우도농악담양보존회 서울지부(연희)
- 05. 21. (토) 춤, 희노애樂 이동준(무용)
- 05. 22. (일) 진도북놀이 박상준(연희)
- 05. 28. (토) 조갑녀류 정명희의 춤 정명희(무용)
- 05. 29. (일) 관객이 참여하는 단심줄대동놀이 한마당 예천엔터테인먼트(연희)

‘予’(너여) ‘汝’(나여)의 天聲地音(천성지음)

Boy and Girls, Beautiful voice of Heaven

2016. 04. 0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곳에서 쓰이는 노래와 장단을 위주로 연주되며 다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철무리굿의 흥겨운 장단을 장구 합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철무리굿을 위한 다스름'을 선보인다. 이어서 우리민족 음악의 원초적 뿌리인 무속의 축원덕담과 다양한 장단이 어우러지는 '소리굿'. 황해도 곳에서 물바가지장단을 치고 놀며 부르던 노래 '나나니'타령, 함경도 민요로 한식과 단오 때 달래춤을 추며 노래판이 벌어져 모두 같이 즐기며 노는 '돈돌라리', 서해안풍어제에서 불리는 노래로 경기도 연평도, 충청남도 천수만, 전라도 철산바다 까지도 어업 노동요로 불리고 있는 '배치기'노래, 마지막으로 소고놀이, 사자춤, 버나놀이 등 다양한 연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연희판굿'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This show consists of song and rhythm of Gut and presents variety performance and bring merriment to audience.

Firstly, 'Chulmurigut', creative dance pieces combing drum dance and chulmurigut on a stage. This is follow by 'Sorigut' that whose lyrics are well-being remarks for shamanism and harmony with rhythm, 'nanani taryeong', a rhythmical song of a gourd for dipping water in Hwanghaedo gut, 'Dodolrari', a Hamgyeongdo Minyo and wild chive dance during the dano, the festival on the fifth day of the fif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Baeqigi', a song of wishing a big catch in the western coastal region especially in Yeonpyeongdo, Cheonsuman and cheolsan mountain. Lastly, 'Yeonhui Pangut', consist of various play like Sogonoreum, a dance performed with a lion's mask, Beona noreum will finalize the whole stage.

공연순서 Program

- 01 철무리굿을 위한 다스름 Chulmurigut
- 02 소리굿 Sorigut
- 03 나나니 Nanani
- 04 돈돌라리 Dondolrari
- 05 배치기 Baeqigi
- 06 연희판굿 Yeonhui Pangut



대표 전순필

연출 김백광

출연 강대현, 윤명희, 박준하, 윤광현, 김성희, 이도형, 이창모, 이나라, 장효선, 김양호

바람의 연희

Play of Wind

2016. 04. 03.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광개토사물놀이 예술단이 미주, 유럽 순회공연을 통해 다양한 국악 연희의 원형과 변형을 만나들며 현대적 감성에 맞는 우수한 무대를 준비하였다.

한국 전통연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종합적인 전통문화공연으로 사물놀이, 판소리, 비보이, 비트박서가 모여 젊은이들만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열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많은 공연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포괄적인 공연을 선사함으로써 관람하는 모든 이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전통문화의 다양한 공연예술 형태위에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가미하여 신명으로 이끌어내는 이번 무대는 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문화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Gwangaeto Samulnori Art troupe had a concert tour to America and Europe, through the performance they reform and translate into different style of Gukak Yeonhui.

This show presents fascinating performance that gathering from past, present and future of Yeonhui in a stage by Samulnori, Pansori, B-boy and beat box, Also meet modern sensibility through which young souls express their energy and enthusiasm. It is such a total package of traditional plays combined with pansori and world famous korean samulnori, which will definitely appeals to everyone. Watching the show with the beauty and excitement of korean music added to various types of traditional art performances, those visiting the museum from home and abroad will be proud of Korean cultures.

공연순서 Program

- 01 전통 창작 타악합주 '운우풍뢰-흔의 소리'
Traditional creative percussion ensemble-'Unupungloe'
- 02 비보이 퍼포먼스 '코리아 Style'
B-boy performance 'Korea Style'
- 03 모듬북 난타 퍼포먼스 'Mega Drum'
Drum Nanta Performance 'Mega Drum'
- 04 비트박스&사자탈놀이 '어흥 yo!'
Beat box & Lion mask dance nori 'Eheong Yo!'
- 05 판소리&비트박스 퍼포먼스 '판Beat 소리 - 신춘향전'
Pansori & Beatbox performance 'Pan Beat sound'-New Chunhyangjeon
- 06 창작 연희 놀음판 'MOVEMENT KOREA'
Yeonhui Noreum Pan-'Movement Korea'



대 표 권준성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장)
출 연 권준성, 조용성, 장지성, 최동환, 박지웅, 김윤만, 강일진, 박문성, 박진형, 조현지, 김유나, 김성용

조경아의 춤 '봄 향기는 내 마음에'

Dance by Jokyung-A 'The scent of Spring in mind'

2016. 04. 0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 중인 조경아무용단의 공연으로 한국무용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작품, 신 고전작품 등을 선보인다.

한국 무용을 대표하는 무용가인 국수호와 서한우의 하사를 통해 전통을 재해석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본 무대는 춤이 가지는 곧은 선의 명료함과 유연함 그리고 몸의 언어를 통해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한다. 또한 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느낌들을 격조, 절제, 단아, 정취, 풍류 등 의미로 해석하여 조경아의 춤 언어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본 공연을 통해 다채로운 한국무용에 서려있는 멋과 기품 그리고 신명을 두루 담아 전통춤의 맛을 더욱 세련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한다.

Jokyung-a dance company who actively performs crossing genres of classical and folk will presents number of korean traditional and creative dance in the stage.

The show comprised of reinterpreted the tradition by Guksoho, Korean dancer of performing art and master Seohanwu.

The dancer express a flexibility and sharp crisp lines of dance to widespread of beauty of korean dance for domestic and abroad.

Also, the dance performance presents into Jokyung-a style of dignified, elegant, self-control, mood and pungryu to embellish a stage. Through a dancer's hand movements, dignified steps and joy will give audience may appreciate the colorful motion of Korean dance.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무 Taepyeongmu
- 02 장한가 Changhanga
- 03 풍운화무(風雲花舞) Pungunhwamu
- 04 춘설 Chunseol
- 05 입춤 Ipchum
- 06 경고무 Gyeonggomu
- 07 버꾸춤 Beokkuchum



대표 조경아(조경아무용단 대표)

출연 조경아, 조황경, 엄률희, 이민선, 황근영, 고예나, 송영림, 백아람

고성오광대 전과장

Entire Gwajang of Goseong Ogwangdae

2016. 04. 10.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봉천놀이마당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공연을 선보인다.

고성오광대는 경남 고성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마당극으로써, 흔히 탈춤이라 불리며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재담을 통해 서민생활의 애환과 민중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고성오광대는 현존하는 영남지역 탈춤 중 가장 그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탈춤으로써 극보다는 춤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연을 5과장으로 구성된 문동북춤, 오광대놀이, 비비과장, 승무, 제밀주과장 순으로 진행되며 제밀주과장에 이어 공연되는 상여과장 또한 볼거리이다.

본 무대에서 펼쳐질 다양한 춤사위의 감동과 더불어 신명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Goseong Ogwangdae' which is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7 and also loved by a number of People.

Goseong Ogwandae is 'Madanggeuk' originating from Goseong, Gyeongnam, where those with masks on express the life of sorrow of ordinary people by making jokes. Goseong Ogwandae, among the mask dances existing in Yeongnam regions, is organized as having been passed down in the form closet to its original state and its dance stands out more than its play. The show consists of 5 Gwajangs that take place in the order of Mundungbukchum, Ogwangdaenori, Binigwajang, Seungmu, and Jemijugwajang. Sangyeongwajang following Jemijugwajang is also something you should never miss out on. you will for sure enjoy and be impressed with a dazzling display of dancing skills.

공연순서 Program

- 01 1과장 문동북춤 Gwajang 1 Mundungbukchum
- 02 2과장 오광대놀이 Gwajang 2 Ogwangdaenori
- 03 3과장 비비놀이 Gwajang 3 Binireum
- 04 4과장 승무과장 Gwajang 4 Seungmugwajang
- 05 5과장 제밀주과장 Gwajang 5 Jemijugwajang



대표 장미이(봉천놀이마당 대표)

연출 전결화

출연 김선우, 김이남, 김지원, 김희선, 이윤일, 오은하, 이상우, 신희준, 백지영, 윤인지, 하승규, 강문철, 구재연, 정영수, 서유경, 이동열, 장미이, 전태현, 전결화, 정성래, 조미경, 조상형, 최진희, 이형근, 김미정, 김민주, 김문숙, 김명숙, 김성담, 김돈구, 김희진, 박진기, 박현숙, 박상미, 박찬민, 서승욱, 정태권, 안갑술, 오현주, 우말숙, 유경자, 은종운, 이길자, 이은옥, 이태영, 임경자, 장태숙, 정상순, 이양순

해설이 있는 풍류 음악회

Pungryu Concert with explanation

2016. 04. 16.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의 생활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풍류문화의 계승발전과 풍류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요풍류회가 대중에게 잊히는 소중한 풍류문화를 선보인다.

특히 아정하고 고상한 음악 '정악'중 '정가'를 중심으로 선보일 오늘 공연은 서양으로 치면 고전음악(classical music)에 속한다.

풍류란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또는 자연과 인생과 예술이 혼연일체가 된 삼매경에 대한 미적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삭막해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향유하였던 풍류정신을 확산하는 일이다. 정가와 상량산연주로 여유롭고 고상함을 선사하려고 한다. 오늘 일요풍류회와 함께 풍류의 정원으로 오셔서 풍류의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같이 즐기는 무대가 될 것이다.

Sunday Pungryu Association protects a succession of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Pungryu culture. They are going to presents precious Pungryu culture in this stage.

Today, the performers are going to show a Korean style of Classical music. Pungryu means elegant culture that was enjoyed by korean, they visited beautiful mountains and valleys reciting poem and playi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since ancient times. Nowadays, Korean have less humanity and recover of the moment and wide-spread pungryu culture at the same time. Classical music and sangryongsan playing will deliver.

Please come to visi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enjoy Sunday Pungryu Association performance. The audience might be able to enjoy stage together about elegant and beauty of Pungryu.



공연순서 Program

- 01 평시조 '청산리' Pyung Sijo 'Cheongsanri'
- 02 여창가곡 우조 평거 '일소백미' Female's song ujo pyeonggo 'Ilsobaekmi'
- 03 대금 피리 병주 - 평조회상 중 상량산 Daegeum & Piri - sangryungsan
- 04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Female's ujo urak 'Wind'
- 05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Female's gyemyeonjo 'Eonyak'
- 06 거문고 산조 Geomungo Sanjo



대표 사재성(중요무형문화재 제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수조교)
출연 이삼스님, 정창관, 이승윤, 윤선숙, 김계희, 김유라, 김세화

희망의 오복락락

The Hope of 'Obokrakrak'

2016. 04. 17.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오복락락을 주제로 壽(수)는 長壽(장수)하는 것, 富(부)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康寧(강녕)은 환한이 없이 편안한 것, 攸好德(유호덕)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考終命(고종명)은 天命(천명)을 다하는 것으로 오복을 통한 희망을 얻는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웅장한 멜로디 아름다운 선율로 전통과 현대 국악기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는 프런티어를 선보인다. 이어서 국악 관현악기의 선율과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을 통한 흥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매사냥, 제주도 민요를 편곡하여 선사하는 너영나영, 모듬북 연주에 화려한 장단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신명을 자아내는 Korean Drum, 우리 국악기를 소개하고 소통하는 국악기 소개, 마지막으로 국악관현악과 판놀음 협연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Under the theme of 'Obokrakrak', Fusion Gukak(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will be presented. Obok(literally, 5 blessings) represents five fortunes: longevity, wealth, health, love of virtue and natural death.

'Frontier', a song in whic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al instruments generate dignified melodies in harmony, opens the stage. In 'New Compilation', the audience may appreciate the mirth and style of Korean classical music through the melodies of traditional string instruments and varied rhythm of traditional percussion. What follows is 'Neoyoung Nayoung', a reinterpretation of Jeju island's folk song. Later, performer introduce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and present 'Sarangga(a love song)' from Pansori Chunhyangga which is inscribed i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Lastly, a Gukak chamber music piece 'Wandering' and exciting Korean folk percussion 'Pannoreum' will close the entire show.

공연순서 Program

- 01 국악관현악 '프론티어' Gukak orchestral music 'Frontier'
- 02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매사냥' 'Eagle hunting' for Samulnori and Chamber music
- 03 국악가요 '너영나영' Gukak gayo 'Neoyoung Nayoung'
- 04 모듬북 퍼포먼스 "Korean Drums" Drum Performance 'Korean Drum'
- 05 아리랑과 함께하는 국악기 소개 Introdu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 with Arirang
- 06 풍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의 협연 '판놀음 2016'
'2016 Pannoreum' with Pungmulnori and Traditional music orchestra



대표 김지수(월드퓨전시나위 예술단장)

출연 김유나, 윤보영, 조애라, 조연희, 안현영, 소명진, 박한규, 김윤만, 최동환, 조용배, 장지성, 박지웅

최정옥의 춤

Dance by Choi Jeongok

2016. 04. 2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화성재인정보존회 회원으로서 활동 중인 최정옥의 전통 춤사위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일반대중들이 접하기 어려운 춤으로 망자의 저승길에 명복을 빌고 춤을 추며, 인간의 축원이 신에게 전달되는 듯한 움직임 속에서 무속적인 신비로움을 창출하는 이동안선생의 엇중모리신칼대신무로 객석과 공연자 모두의 부모님을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서 김수악선생의 애달픈 구움에 여인들의 한과 멋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교방굿거리, 삶의 희노애락을 살풀이 수건에 담아서 허공에 뿌리며 절제미와 함께 단아하고 화려한 살풀이춤, 따뜻한 봄날 꽃과 나비처럼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풍류도, 신명나는 진도북춤으로 흥을 돋우고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Choi Jeongok, who is the member of Hwaseong Jaein Chung Preservation Association, is going to show the tradition dance performance in this stage.

'Sinkaldaesinmu Dance', a Korean dance to wish a easy passage eternity and to mourn for one's dead parent. The dance is done by solo in white traditional Korean dress. Also, performer is showing a mysterious motion of Shamanism at the same time, wishing a gentle an easy death of both audience and performer's parents. 'Gyobang gutgeori' express the sadness of sorrowing feeling and beauty of Korean women, 'Salpurichum', with a betray one's feeling, restrained moderated and splendid of dance into Salpuri towel brushing in the air, 'Pungryudo', a love story of couple butterflies and flowers in warm spring opportunity to may appreciate Heung, 'Taeyeongmu', a dance to wish a great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country will embellish the finale.

공연순서 Program

- 01 신칼대신무(화성재인청류) Sinkaldaesinmu(Hwaseongjaeincheng style)
- 02 소고춤(채종실류) Sogochum(Chaejongsil style)
- 03 교방굿거리춤 (김수악류) Gyobanggutgeorichum (Kimsuak style)
- 04 살풀이춤(한영숙류) Salpurichum (Hanyoungsuk style)
- 05 풍류도 Pyungryudo
- 06 진도북춤(박병천류) Jindobukchum (Parkbyeongcheon style)
- 07 태평무(한영숙류) Taepyeongmu (Hanyoungsuk style)



대표 최정옥(경기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춤 이수자)

사회 정명희

출연 이계영, 송혜주, 김순덕, 이미정, 주정숙, 이혜령, 김성심, 전건자, 김희자

다 같이 노는 날

The day 'We play together'

2016. 04. 24.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을 쉽게 접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공연단 타투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연희 공연을 선보인다.

전통예술공연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그 자체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꾸며보았다.

춤 추는 날, 두드리는 날, 노래 부르는 날의 시리즈를 종합하여 다 같이 노는 날이라는 타이틀을 갖추고 공연자만이 아닌 관객들도 다 같이 참여하여 공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통예술공연의 형태위에 멋과 흥을 가미하여 신명으로 이끌어내는 이번 무대는 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문화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In this stage, Traditional Art Troupe 'Tattoo' presents crossing genres of Korean traditional art which is unfamiliar and uneasy to modern people. Today, they recreated to fit the modern taste for tradition and modern music in harmony.

The 'tattoo' is not only amusing eyes and ears of the audience but also make a chance to audience to on a stage.

Under the titled of 'The day we play together', combing with 'The dance day, The hitting day, The singing day'. The stage where the audience can interact with the performer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them. Everyone include dancer and audience will enjoy the performance with merriment and excitement.

The dancers will bring joyful and delightful of traditional art performance and each of visitor and audience may appreciate the performance proud of korean culture.



공연순서 Program

- 01 두드림의 승부사 (모듬북 합주) Adventurer of Dudeurim
- 02 판 스텝 (판소리&DJing) Step of Pan (Pansori&DJing)
- 03 타투와 날라리(창작태평소 시나위) Tadoo & Nalrari (Tapyeongso Sinawi)
- 04 속대머리(국악가요,b-boy,한국무용) Ssukdaemoeri (Gukak Gayo, B-boy, Korean dance)
- 05 다 같이 노는 날(대동놀이) The day 'We play together'(Dadongnoli)



대표 최재학(전통예술공연단 타투)

연출 최재학

출연 최재학, 이호윤, 김보미, 황석찬, 이승동, 김재성, 이은미, 최지민, 강윤지, 이혜빈

국악과 함께하는 ‘노래하는 박물관’

‘A singing of Museum’ with Gukak

2016. 04. 3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7인으로 구성된 국악실내악단과 경기민요가 함께하는 공연이다. 전통의 시김새가 도드라져 흥과 멋이 살아있는 민속악부터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음악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첫 시작은 ‘fly to the sky’는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표현한 웅장한 곡이다. 이어 홀로아리랑을 국악의 소리로 들어보게 될 ‘홀로아리랑’은 독도를 주제로 한 곡으로 잔잔하고 서정적인 곡이다.

세 번째 곡을 연주하기 전 국악기에 대한 해설과 함께 악기들의 독주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지는 세 번째 곡은 서울, 경기지방의 대표적인 경기민요를 소리꾼 ‘김보성’의 구성진 소리를 감상한다.

이어 국악실내악으로 양방언의 프론티어, 배 띄워라, 신뱃놀이를 소리와 함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This show consists of Gyeonggi Minyo and Gukak Chamber Ensemble performed by seven members of K-music group. Folk music has a traditional sigimsae of Heung and Beauty and performers translate a stage into creative style loved by both gender.

‘Fly to the sky’, a magnificent song which express the beauty of korean emotion, ‘Solo performance, Arirang’, a song under the theme of Dokdo which is calmly and softly perform at a stage, The performer makes a special stage with story-telling style commentary to enhance audience understanding before move on to third song. Kimbo-seong, a singer, will sing a Gyeonggi Minyo from Seoul and Gyeonggi region.

For the Gukak Chamber ensemble, Frontier by Yangbangen, set a ship of afloat, sound of sinbaetnori will close the show, bringing merriment and excitement to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 01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 02 홀로아리랑 Solo performance, Arirang
<악기소개> Introduce of Instrument
- 03 경기민요 Gyeonggi Minyo
- 04 프론티어 Frontier
- 05 배 띄워라 Set a ship afloat
- 06 신뱃놀이 Sinbaetnori



대표 장수미(k-music group “미소” 대표)
출연 장수미, 김보성, 이현정, 장연정, 김현정, 윤희상, 오경준

